



축구국가대표팀 송민규(오른쪽 2번째)와 권창훈(22번)이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전 후반 5분 1-1 동점골 직후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한국이 2-1 역전 승을 거두고 H조 1위로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고양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침대축구’ 잣지만, 2% 아쉬웠던 선제실점

레바논전 현장 분석

레바논전 실점 후 ‘침대축구’에 질질 후반 5분 동점골·손흥민 PK 결승골 선수들 잤은 실책 등 문제점 드러내 최종예선 중동팀 대비 백신 삼아야

안방에서 3전승, 그리고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진출이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다만 과정에서 2% 아쉬움이 남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레바논과 H조 최종전(6차전)에서 주장 손흥민(토트넘)의 맹활약 속에 2-1로 이겨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5승1무, 승점 16으로 마무리했다.

에이스가 2골에 모두 관여했다. 전반 12분 하산 사드에게 선제골을 내준 한국

은 후반 5분 손흥민의 코너킥에 이은 송민규(포항 스틸러스)의 헤더가 마헤르 사브라의 몸을 맞고 들어가 균형을 맞췄고, 후반 20분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직접 차 넣어 승부를 뒤집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를 모두 5-0으로 격파하며 최종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것이 살짝 독이 된 듯했다. 선제골을 넣은 사드는 지난해 K리그2(2부) 안산 그리너스에서 11경기를 뒀 ‘지한파’로, 안산 소속으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이날은 달랐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중동 국가들은 한 수 위의 상대와 맞붙을 때면 완전히 수비라인을 내린 채 간헐적 역습을 노린다.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득점에 리드를 잡으면 필수적으로 ‘침대축구’를 펼친다.

이날 레바논도 예외 없었다. 충돌이 없어도 그냥 주저앉았다. 주심과 의무진 호출은 기본이고, 일단 파울을 얻으면 다

순위	국가	승점	승	무	패	득실차
1	한국	16	5	1	0	21
2	레바논	10	3	1	2	3
3	투르크메니스탄	9	3	0	3	-3
4	스리랑카	0	0	0	6	-21

※ 불참 선언한 북한의 모든 경기 무효 처리.

시 불을 처리할 때까지 한참 시간을 낭비했다. 후반 초반 빠른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같은 양상이 지속될 뻔했다.

정신무장의 차이도 있었다. 5차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2-3으로 패한 레바논은 한국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다. 아시아 2차 예선 각조 1위(카타르 제외) 7개국과 조 2위 중 상위 5개국 이 최종예선에 오르기 때문이었다.

레바논까지 완파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었다. 벤투 감독은 “우리의 스타일과 틀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축구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날은 여러모로 답답했다.

벤투 감독은 약체들과 2경기에서 큰 폭의 로테이션과 적극적인 선수 실험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19세 신성’ 정상빈(수원 삼성)이 A매치 데뷔전·데뷔골의 기쁨을 누렸고, 효과적인 밀집수비 파괴법도 마련한 듯했다.

레바논전에선 달랐다. 플랜A에 가까운 주축들이 총출동했음에도 크로스는 부정확했고, 불필요한 실책이 많아 안정적인 빌드업 플레이를 구사하지 못했다. 피지컬이 우수한 상대와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최종예선은 올 하반기에 시작된다.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보다 훨씬 강한 상대들과 만난다. 특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예상 상대국들의 전력과 침대축구엔 상상 이상이다. 선제득점에 실패하면 승리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레바논전을 최종예선에 대비한 맞춤형 백신으로 삼아야 하는 ‘벤투호’다.

고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1면에서 이어집니다

경기 후 벤투 감독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앞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를 잇달아 5-0으로 대파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최종예선에서 만날 상대들과 전력의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레바논을 상대로는 고전한 탓이다.

“소집기간 모든 선수들의 자세가 좋았고 (3연승의)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총평한 벤투 감독은 “1골차로 이긴 것이 우리의 경기력을 전부 반영한 건 아니다. 더욱 크게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워

했다.

이날 레바논의 시간지연 행위(침대축구)가 나올 때마다 격하게 항의한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에서도 이런 모습이 흔하다면 아시아축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심판진이 잘 대응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많은 자금을 쏟아 붓고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며 아시아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레바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월드컵 본선에서도 중동국가들의 시간지연은 아주 흔하다. 결국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전방위적 빌드업과 강한 압박을 기본으로 한 자신의 축구철학과 방향에 대한 믿음도 재확인했다. 벤투 감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힘을 키워야 하고 많이 배워야 한다”며 “스타일을 바꾸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최종예선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든 우리의 틀을 지키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실수’를 먼저 거론했다. “우리 실수로 먼저 실점하면 힘든 법이다. 역전승을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종예선은 훨씬 어려운 길이다. 정신적으로, 전술적으로 더욱 잘 준비돼야 한다. 모든 면에서 철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

했다. 경기 후 하프라인에 동료들을 불러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손흥민은 “운이 참 좋은 선수다. 좋은 자세를 가진 동료들과 주장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한술밥을 먹은 크리스티안 에릭센(덴마크)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았다. 이날 새벽 벌어진 핀란드와 유로2020 조별리그 경기 도중 쓰러진 에릭센에게 레바논전 득점 직후 손가락 세리머니로 격려 메시지를 전한 그는 “(토트넘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이 격려했다. 마음이 불편했고 신경 쓰였다”며 회복을 기원했다.

가나 평가전서 웃은 김학범호 ‘김진규의 재발견’

프로 7년차…나이에 비해 경험 풍부 탁월한 패스로 중원 사령관 눈도장 김학범 감독 최종 엔트리 고민 늘어

올림픽축구대표팀 김학범 감독은 12일 가나와 평가전을 마친 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모든 게 꼬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라고 총평했다. 뜻하지 않았던 ‘퇴장’을 의미했다. 한국은 1-0으로 앞선 전반 38분 김진야(FC서울)가 상대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밟았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거쳐 레드카드를 꺼냈다. 수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상민(서울이랜드)~이승호(포항 스틸러스)~조규성(김

천 상무)의 연속골로 3-1로 이겼다.

이날 경기는 승부보다는 최종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개개인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감독은 선수들의 장단점을 직접 메모하며 올림픽 본선 경쟁력을 꼼꼼히 살폈다. 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장 돋보인 존재는 미드필더 김진규(24·부산 아이파크)다. 4-2-3-1 포메이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한 그는 공격전개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주목 받았다. 특히 탁월한 패스 감각이 돋보였다. 군더더기 없는 2대1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벗겨냈고, 동료의 움직임에 읽고 정확한 스



김진규

루패스를 찢어줬다. 중원을 함께 책임진 이수빈(포항), 정승원(대구FC)과 호흡도 좋았다.

또 과감해야 할 때는 과감했다. 전반 33분 개인기로 상대 수비 2명을 따돌린 뒤 문전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를 날렸다. 골대를 살짝 빗나갔지만 상대의 가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했다. 자신의 능력과 색깔을 충분히 보여준 김진규는 후반 12분 교체돼 나왔다.

그동안 김진규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 출전한 그는 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포지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강인(발렌시아),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백승호(전북 현대), 이동경(울산 현

대) 등의 높은 인지도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날은 완전히 달랐다. 자신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김진규는 나이에 비해 프로 경험이 풍부하다. 2015년 개성고(부산)를 졸업하고 부산에 입단한 프로 7년차다. 첫 해부터 주전 급으로 뛰었고, 이후 꾸준히 출전하며 중원의 사령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에도 K리그2(2부) 14경기를 소화했다. 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주장을 맡고 있다.

김진규의 급부상으로 “모든 선수를 동일 선상에 두고 평가 하겠다”던 김 감독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2선 자원이 차고 넘치는 올림픽대표팀에서 김진규가 과연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아래)이 13일(한국시간) 코펜하겐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유로2020 핀란드와 B조 1차전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동료가 달려와 기도를 확보하고 있다.

코펜하겐(덴마크) | AP뉴시스

핀란드전서 갑자기 쓰러진 에릭센 심폐소생술 받고 후송…의식 회복

전 동료 손흥민 “힘내자 형제여” 쾌유 기원

손흥민(토트넘)의 옛 동료인 크리스티안 에릭센(29·인터 밀란)이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다행히 병원 후송 후 안정을 되찾았다.

덴마크국가대표 에릭센은 13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조별리그 B조 핀란드와 1차전 전반 42분 왼쪽 터치라인에서 진행된 스로인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른 선수와 경합은 없었다. 선수들은 즉각 응급 상황을 알렸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킨 뒤 긴급히 의료진을 불렀다.

의료진은 그라운드에서 15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충격에 휩싸인 덴마크 선수들이 에릭센 주변을 둘러싼 가운데, 1만6000여 관중은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에릭센은 산소호흡기를 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다.

에릭센의 긴급 후송 이후 경기 중단 결정을 내린 유럽 축구연맹(UEFA)은 “에릭센이 병원에 도착한 뒤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덴마크축구협회도 에릭센이 의식을 회복했고, 병원에서 추가 검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센은 토트넘(잉글랜드)에서 한때 손흥민과 발을 맞추며 한술밥을 먹던 동료였다. 그는 지난해 초 이탈리아 인터 밀란으로 이적했다. 동갑내기 에릭센과 5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사이인 손흥민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는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내 모든 사랑을 너와 네 가족에게 전한다. 힘내자 형제여”라는 글을 올려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90분 넘게 지연됐다가 재개돼 후반 15분 요엘 포호안팔로(우니온 베를린)의 결승골로 핀란드가 1-0으로 이겼다. 하지만 UEFA는 이날 경기의 최우수선수인 ‘스타 오브 더 매치’로 에릭센을 선정했다. UEFA는 “축구는 아름다운 게임이고, 에릭센은 아름다운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에릭센의 쾌유를 기원하며, 덴마크와 핀란드 팀의 모범적 태도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루카쿠 멀티골…벨기에, 러시아 3-0 완파



루카쿠

‘우승 후보’ 벨기에가 모렐루 루카쿠의 멀티골을 앞세워 러시아를 3-0으로 물리치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벨기에는 13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레스토프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러시아를 3-0으로 완파했다. 승점 3을 챙긴 벨기에는 덴마크에 1-0 승리를 거둔 핀란드를 득실차에서 앞서 조 선두로 나섰다.

벨기에는 우승후보다웠다. 전반 10분 러시아 수비진의 실수를 틈탄 루카쿠가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34분에는 토마스 피네이가 세컨드 볼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추가골을 올렸다. 이어 후반 43분 루카쿠가 멀티골이자 썩기골을 넣어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루카쿠는 선제 결승골을 터트린 뒤 특별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날 러시아-벨기에전에 앞서 벌어진 덴마크-핀란드의 B조 경기 도중 자신과 함께 인터 밀란(이탈리아)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전반 42분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 때문이었다. 루카쿠는 중계 카메라로 달려가 얼굴을 대고 “크리스, 크리스, 사랑해(Chris, Chris, I love you)”를 외치며 에릭센의 쾌유를 기원했다. 최현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